

# 12월의 기도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서 7장 14절>



1. 사망과 죽음의 역사를 생명과 소망의 역사로 변화시키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가장 낮고 천한 자의 모습으로 이 땅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드립니다. 어둠과 절망 속에 살아가는 이들에게 소망이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늘까지 치솟은 교만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이들을 위해 친히 가장 낮은 마구간의 말구유에 태어나신 예수님을 경배합니다. 이 시간 아기 예수님의 성탄을 축하하며 경배드립니다.

2. 천국가신 조용기 목사님께서 피땀 흘려 세계 곳곳에 뿌려 놓으신 복음의 씨앗들이 후세대 선교사들의 정성스런 돌봄을 통해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3. 주님 말씀에 순전히 응답하고 순종하여 복음 들고 세계 곳곳으로 찾아들어가신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낯선 땅에서 너무 많이 외롭지 않게 하시고 생명을 돌보는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며 돕는 손길을 넉넉히 붙여 주시옵소서.

4. 주님께서 주신 2023년을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다가오는 2024년 새해를 기쁨과 또 다른 설렘으로 잘 맞이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 지난 한 달 동안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여의도순복음교회, 순복음동경교회, 시가끼 시계마사 목사님, 순복음신안산교회께서 후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김태승, 오주봉, 정경자, 최인철, 함석숙님께서 후원해 주셨으며 무명으로 후원해 주신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온라인 후원을 위한 계좌안내 :

예금주 : 디시이엠  
계좌번호 181-22-02127-7 혹은  
256-890020-00804 (하나은행)

### 조용기 목사 특별 메시지

## 사랑의 발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니라 (요한일서 4:16)

예루살렘에서 5리쯤 떨어진 베다니라는 작은 마을에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라는 삼남매가 살고 있었습니다. 성경에 그들의 부모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보아 그들은 부모 없이 살았던 것 같습니다. 동네에서는 이 집을 가리켜 기쁨이 없는 가난한 집안이라고 불렀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집에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다니시다 베다니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하셨는데 예수님의 말씀이 이 가정에서 절망과 슬픔과 죽음을 다 제거해 버린 것이었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집으로 초청했습니다. 그는 기쁨이 충만하여 예수님을 대접할 준비에 바빴습니다. 그런데 동생 마리아는 그를 돕지 않고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마르다가 예수님께 와서 불평을 하자 예수님께서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눅 10:41-42)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마르다처럼 많은 일을 해 놓아야 인생에서 성공한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이 많으면 번뇌도 많습니다. 물질과 명예와 명성과 노벨 문학상도 위대한 작가 헤밍웨이에게는 어떤 삶의 가치를 심어 주지 못했고, 결국 그는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마리아가 택한 한 가지 일은 무엇일까요?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무엇이 마리아로 하여금 그것을 선택하게 했을까요?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것은 업적과 공로를 세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여 그 빛으로 내 마음에 비추게 하는 일입니다.

사랑은 오직 하나님을 인생의 중심에 모실 때에 다가옵니다. 하나님이 바로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 2023년 성령과 함께한 DCEM 발자취

## 세계 기독교 부흥의 새로운 도약을 향해



DCEM은 올 한해 더 큰 비전과 목표를 향해 달려왔다. 전 세계를 강타했던 코로나 팬데믹이 끝나지 않은 가운데 희망과 소망의 꿈을 안고 시작한 2023년은 교회 부흥을 넘어 세계 선교 성장을 주도하며 개신교 선교 역사에 큰 획을 그은 조용기 목사의 신앙을 계승해 팬데믹으로 무너진 신앙을 보수하는 데에 힘써왔다.

한해가 저물어 가면서, 올해 조용기 목사 2주기를 맞이하여 성령님과 동행한 사역의 역사를 되돌아보며 DCEM은 9월 영국 런던에서 다시금 세계 복음화에 힘을 쏟을 것을 다짐했다.

지난 9월 14일(현지 시각) 영국 심장부 런던의 런던순복음교회에서 개최된 영산 2주기 추모예배 성회는 DCEM이 주관하고 DCEM 사무총장 시가끼 시계마사 목사의 추모사로 시작해 이영훈목사(여의도순복음교회)가 설교를 맡았으며 가족을 대표로 국민일보 조민제 회장 등이 참석했다.

영산 2주기 추모예배 성회에 참석하기 위

해 유럽 전역의 선교사들과 영국에 흩어져 있던 우리 순복음 신앙의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 스승 조용기 목사의 복음 열정을 되새기며 '오중복음 삼중축복 4차원의 영성'으로 세계 선교의 주역으로 부흥할 것을 다짐했다.

2021년 9월 14일 86세를 일기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조용기 목사는 한국전쟁의 폐허 속에 있던 우리나라에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세계 선교에 앞장서 서구 중심의 성령 운동을 한국교회가 주도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게 했다. '안디옥 교회의 영광'(행 13:1-3)이라는 제목으로 한평생 성령 충만의 삶을 살았던 조용기 목사를 추모하며 희망의 메시지를 전한 이영훈 목사는 "1967년 4월 영국 웨스트민스터 센트럴 홀에서 열린 부활절예배가 조용기 목사님의 첫 해외 선교 사역이었다. 이러한 뜻 깊은 자리에서 우리가 조용기 목사님의 2주기 추모예배를 드리게 되어 감회가 새롭다. 조용기 목사님의 성령 충만한 선교 사역을 계승하고, 각자의 선교지에서 부흥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순복음의 '오중복음 삼중축

① 영국 웨스트민스터 센트럴홀에서 말씀을 전했던 조용기 목사. ② 영산 조용기 목사 2주기 추모예배 전경(런던순복음교회). ③ 영산 조용기 목사 2주기 추모예배에서 추모사를 하는 시가끼 시계마사 목사(런던순복음교회)  
복 4차원의 영성'으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될 것"을 당부했다.

또한 DCEM 사무총장 시가끼 시계마사 목사(순복음동경교회 담임)는 추모사를 통해 "목사님을 모시고 세계를 120바퀴 이상 돌며 70개국 350개 도시에서 성회를 인도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시고 천국가신 목사님을 기억하며 성령 충만한 믿음생활을 이어가기 바란다"고 전했다.

저물어가는 2023년 한 해를 뒤로 하며 20세기 지구를 영적으로 후퇴시켰던 조용기 목사의 전력질주를 회고해본다. 코로나가 불러온 신앙의 단절을 청산하고 오직 예수 십자가 복음에 취해 복음으로 '하나 됨의 비전'을 가슴에 품고 계속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2024년 새해의 행진을 걸어가길 것이다.

## DCEM 뉴스레터 구독신청 안내

DCEM에서는 故 조용기 목사님의 선교 사역의 발자취와 새로운 선교 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매월 정기 간행물 '뉴스레터(DCEM NewsLetter)'를 제작해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DCEM을 위하여 물질과 기도로 후원하기 원하시는 분 또는 정기간행물을 무료로 받아보시기 원하시는 분께서는 저희 DCEM에 연락주시면 조용기 목사님의 국내외 사역을 소개하고 있는 뉴스레터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TEL : (02) 6181-5064 / dcem@davidcho.com





DCEM 총재 조용기 목사

사람들은 누구나 복을 받기 원합니다. 그래서 매년 새해가 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신년 운세를 보기도 하고 복을 받으려고 여기저기 찾아다니면서 온갖 것을 다 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복을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1.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본문 말씀 시편 67편의 기자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달라(시편 67편 1절)”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기도한 것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주 만물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만이 인간에게 복을 주실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2. 구원을 베푸신 예수님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큰 복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을 말합니다. 이와 같은 놀라운 복은 거저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인간이 저지른 죄를 대신 걸머지고 십자가에서 몸 찢고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위대한 설교가 찰스 스펄전(C. H. Spurgeon) 목사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수 있는 복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 걱정도 없습니다. 둘째,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셋째, 주님께서 우리의 짐을 대신 지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아무런 짐이 없습니다. 넷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만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 혼, 육을 전부 다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녀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며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이며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다. (시편 67편 1절~7절)

3.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삶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이미 복을 받은 사람들이요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을 받았으니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면서 사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삶은 어떻게 사는 것일까요?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면 기쁘고 즐겁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의 말을 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십니다. 신명기 28장 2절로 6절에도 “네가 네 하나님 야훼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네 몸의 자녀와 네 토지의 소산과 네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네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둘째로, 우리는 다가오는 한해를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해로 삼아야만 합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는 대화가 있어야만 서로를 잘 이해하고 더 많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대화가 오고 가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대화 통로가 바로 ‘기도’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통로이고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말하는 통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기도예 힘써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로 2절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라고 기록해 놓았습니다. 셋째로, 우리는 십일조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중의 십분의 일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바로 십일조입니다. 십일조는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일조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네 보물 있는 그 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마태복음 6장 21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면 무엇을 쥐도 아깝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사랑은 이처럼 주는 것으로 증명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려야 합니다. 시편 67편 5절에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감사와 찬송으로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좋을 때만 감사하지 말고 고난을 당할 때도 감사해야 합니다. 고난은 우리를 자라게 합니다. 고난이 와야 깨어져 회개하고 순종하고 믿음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감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표현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려운 일을 만나면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슬퍼하며 묻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럴 때 “주님께서 나와 같이 계심으로 주님께서 모든 것을 맡아서 선을 이루게 하실 줄을 믿고 감사합니다”하며 이렇게 감사를 고백하면 ‘도대체 왜?’라는 마음의 갈등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가올 한 해 동안 어떤 상황을 만나더라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시고 여러분의 삶에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차원의 말씀

영산강해 마태복음 1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가장 먼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기록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아브라함의 씨에서 메시아가 나올 것을 약속하셨으며, 또 다윗의 혈통에서 영원한 왕이 나올 것을 언약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마태는 예수님이 우연히 메시아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뿌리를 통해서 오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증명한 것입니다. 메시아에 대한 약속은 아담과 하와 때부터 시작하여 아브라함을 거치고 다윗을 거치며 수천 년의 세월을 통하여 예언되었고, 예언의 결과로서 예수께서 태어나신 것입니다.



열네 대리라 (마태복음 1: 2-17)

세계 민족 중 유대 민족 다음으로 족보를 많이 캐는 민족은 우리 한민족입니다. 족보는 우리 개개인의 뿌리이기 때문입니다. 족보를 통해서 할아버지를 알고, 조상들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나의 정체성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뿌리를 알아야 비로소 분명한 자기 정체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바벨론으로 이거한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마태는 예수님의 족보를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다윗 왕까지 14대, 다윗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바벨론으로 잡혀갈 때까지 14대, 바벨론에서 귀환 후 예수 그리스도까지 14대로 딱 맞추어 기록하였습니다. 이것은 유대인의 독특한 족보기록 방식입니다. 예수님의 족보를 자세히 살펴보면, 상당히 놀라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요셉의 아들로 기록하지 않고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16절)고 기록한 사실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보여 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이 마리아의 남편이고 마리아의 몸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기 때문에 요셉은 예수님의 양아버지가 되었고, 요셉의 족보에 예수님의 이름이 오른 것입니다. 이리므로 예수님의 족보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을 통하여 다윗의 후손인 요셉을 양아버지로 삼고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셨음을 보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영산강해는 조용기 목사님의 마태복음 강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에서 요약 발췌하였습니다.

Merry Christmas
기쁜 성탄을 맞이하여 2023년 한 해도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고 성원해 주신 은혜에 깊은 감사 드립니다.
저희 DCEM은 천국가신 조용기 목사님의 유지를 받들어 계속해서 세계 선교에 혼신의 노력을 경주 할 것입니다.
복된 성탄과 풍성한 새해를 맞이 하시고 주 안에서 승리의 기쁨이 항상 넘쳐 나시길 기도합니다.
사무총장
시가끼 시게마사 목사 S. SUGIMASU